

## < 2013년 10월 20일 주일 참고 기도문 >

사랑하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은 증거의 신이시며, 성자는 말씀과 사랑과 구원의 신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오신 성자를 증거하며, 그리고 성자의 욕이 되시는 자를 증거하며 섭리역사를 증거하여 이 시대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맞다고 증거하시기 위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과 은혜를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돌려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깊은 사랑으로 모시는 이 시간 성자의 사랑, 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드리오며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뇌의 생각이 자극되게 하시며, 오직 성자께 집중하여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차원높게 전환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깊은 심정으로 고백드리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시며 생각의 축복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성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 보낸 자의 몸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과 위대한 성약역사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우리의 집과도 같고, 우리의 태 안과도 같은 소중한 역사이기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역사가 잘 되어 성자와 보낸 자의 권위와 위신을 그 놀라운 권세만큼 하늘까지 높여 드리기를 진정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 하여 그 위신과 권위가 땅까지 떨어졌사오니 이제는 높일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높이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영광과 이 시대 보낸 자가 행하신 것은 이 정도로 행하여서는 빛이 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차곡차곡 쌓아 56년간 성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놓은 역사이니 만큼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아직까지도 개인의 문제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며, 제발이나 생각의 축복을 받아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이 되어도 생명길을 지금까지 왔사오니 더 차원을 높여 하나님, 성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선생님께서도 억울하지 않으시고, 이 길을 걸어 온 우리들도 더욱 더 기쁨과 보람을 얻으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과거의 낮은 차원 생각들이 다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생각이 없도록 머릿속에 모든 생각들을 불태워 주시사 성자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하게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자 주님. 이제는 이 역사와 선생님을 더욱 더 증거하며 자부심있게 나타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외쳐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리고, 이제는 때가 와서 하는 대로 잘 된다 하셨사오니 이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 우리를 위해 사랑과 희생의 조건을 세워 주시는 선생님을 불같이 증거해 드리고, 그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성자의 큰 능력을 받지 않으시면 그 귀하신 사명을 행하실 수가 없사오니 사랑하는 그 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권능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불같은 역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역사는 시대 보낸 자가 살아있고, 그 분을 모시고 될 길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휴거의 기회가 남아있고, 정말 좋은 기회의 때이니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섭리역사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자의 욕이 되시는 선생님께서 그 동안 글로 외치시며 그냥 마음으로 혼으로 보내어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입술을 열어 성자를 가장 완벽하며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시도록 때와 시기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생님께서 마음껏 외치실 수 있는 자유의 역사를 누리시도록 책임분담을 다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심정으로 역사의 대표주자로 뛰고 달리는 두 증인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역사를 세워 나가는 섭리사 형제들 가운데도 다 잘 되고 형통되는 휴거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처음과 나중까지의 모든 것들을 깊이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